



### 화순군,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

소·염소 일제 접종 완료  
취약 돼지농가 보강접종

화순군(군수 구중곤)이 구제역 예방 및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접종 1개월이내 소를 제외한 관내 모든 소 662호 13,749두, 염소 159호 11,000두에 대한 하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군에서 약품을 구입해 공수의를 동원하여 농가를 순회하면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50두 이상의 전업규모 농가는 군에서 약품구입비의 50% 지원하여 축협에서 직접 약품을 구입해 자가 접종했다. 또한, 염소는 사육규모에 상관없이 전

농가에 약품을 지원하는 등 구제역 예방 방역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으며, 돼지는 연중 수시로 접종을 하고 있으나, 방역이 취약한 3개 농가에 대해서는 약품을 지원하여 1,634두를 보강접종 완료하였다. 현재 화순군은 구제역 유입방지 및 완전차단을 위해 상·하반기 일제접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송아지는 공수의를 통해 수시접종을 하는 등 백신 접종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인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방역준수 사항 등을 축산농가에 카톡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금번 방역대책 기간에도 구제역 발생이 없는 청정화순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전남 화순=봉채영 기자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들과 함께 남광주 푸른길 공원에서 푸른길 공원 가드닝 및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 광주銀, 지역 청소년과 함께 멘토링 봉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3일 오전 10시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들과 함께 남광주 푸른길 공원에서 푸른길 공원 가드닝 및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경전선이 외곽으로 이설되면서 남은 폐선 부지를 공원으로 탈바꿈한 남광주 푸른길 공원은 북구 중흥동 광주역부터 남구 진월동 동성중 입구까지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광주의 대표적인 녹지공간이다. 이에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20여명은 야외 체력 및 문화 활동을 통한 지역 청소년들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광주지역 청소년 30여명과 함께 조를 이루어 푸른길 기차 벽면녹화 리모델링 및 공원 정

화활동 등을 펼쳤다. 공원 가꾸기 활동 이후에는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단체 영화 관람 시간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공원을 꾸미고, 나만의 화분을 직접 만들면서 평소 접해보지 못한 활동을 몸소 체험하게 되어 인상 깊었다”며 “멘토 선생님들과 대화를 통해 고민상담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말했다. 광주은행 임숙경 사회공헌실장은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각계 각층에 꼭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지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2 | 해질 / 17:29

11월 6일 (화) 음력 : 9월 29일

수도권 날씨 9 ~ 1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생계비 지원

## 광주형 기초보장제

### 매월 일정금액 지급... 상시 접수

광주광역시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주민들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지난 7월 도입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도시의 재산 기준 5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각각의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30%(1인가구 기준 50



이용섭 광주시장

만원) 이하 이면 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1인 가구 기준 66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지난 4개월간 122세대에 1억여원의 생계급여(1인가구 기준 20만원)

이 지급됐다. 실제 광주형 기초보장제 수급자인 홀몸노인 A씨는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데도 자녀들이 돈을 벌고 있어서 수급자가 될 수 없는데 낙담하던 차에 동주민센터에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게 됐다”며 “20여 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는 비수급 빈곤계층 감소를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 대상자 발굴에 힘쓰는 한편, 올해 지원 상황을 보고 내년부터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 더욱 탄탄하고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oeul.co.kr

# 지금 장성군민 되면 ‘파격적 혜택’ 받는다

## 장려금·결혼축하금 등 인센티브 유출 감소·타지역 인구 적극 유입

# 지난달 결혼한 A씨는 최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장성을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결혼축하금 300만원을 준다는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혼인관계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10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도 2년에 걸쳐 매년 100만원씩 받게 될 예정이다. #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면서 장성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B씨는 최근 장성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 B씨는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입장려금으로 15만원을 받게 된다.



장성군은 인구유입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장성군이 10월 1일부터 시행한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장성군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푸짐하다. 장성군은 지난달부터 장성군민에게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유공기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전입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입장려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장성에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대상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장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기업체 직원의 경우는 15만원을 지원한다. 또 결혼한 커플 중 한명이라도 1년 이상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주민은

‘결혼장려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신고시 100만원을 주고 이후 2년간 매년 100만원씩 총 3회에 걸쳐 지급된다. 결혼 이주 등으로 장성에 오래 거주하다 국적을 취득한 이들도 ‘국적취득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축하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장성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이밖에도 전입 인원이 많은 유관기관이나 기업체에도 전입자 수에 따라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해 관계 기관의 관심도 유도해 갈 계획이다. 장성군의 이 같은 노력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에 따른 대응책으로 장성군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늘려 인구유출을 줄이고, 타지역 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시킨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주소만 옮겨 혜택을 보는 허위전입자를 걸러내기 위해 거

주 기간에 따라 장려금과 축하금을 지원하고 전입자들이 장기적으로 장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인구늘리기 노력은 단순히 인센티브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지리적 이유로 광주광역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도시근로자를 위한 매력적인 배드타운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광주와 10분~20분 거리에 있는 남면지역에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이 들어서는 ‘덕성행복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또 황룡면에 맥호마을 군단위로는 이례적으로 LH 공공임대아파트를 3차, 4차까지 유치해 현재 장성을 성산지역과 삼계면에 각각 150세대 규모로 건립중이다. 장성군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춰지면 보다 많은 근로자와 도시민이 주거지역으로 장성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 인천환경공, 시민과 승기천 환경지킴이 활동

### ‘클린 인천!’ 만들기 사업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승기사업소는 지난 3일 지역 시민들과 함께 동막교부터 남동대교까지 3km 길이의 승기천 주변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및 산책로를 정비하는 ‘클린 인천!’ 승기천 환경지킴이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1년부터 지역사회 책임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환경정비 취

약지역을 시민들과 함께 정화하는 ‘클린 인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활동에는 인천환경공단 직원, 대건고등학교, 연수고등학교, 뷰티예술고등학교 학생 등 50여 명의 공단직원 및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동막교부터 남동대교까지 3km 길이의 승기천 주변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및 산책로 정비를 실시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환경정화활동을 주관한 박종태 승기



사업소장은 “인천 유일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